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파트2’ 20일 개최

色다른 플립... 비스포크 접목 기대

‘색상 조합 완제품 상징’ 초대장 신제품 보다 라인업 추가 예상 비스포크 생태계 통합 빨라질 듯

삼성전자가 갤럭시 Z 시리즈 인기를 ‘파트2’로 이어간다. 새로운 디자인과 생태계를 더한 폴더블폰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20일 ‘갤럭시 언팩 파트2’를 개최한다고 13일 초대장을 발송했다.

초대장은 여러 색상 사각형이 정육면체로 조합되는 모습을 그렸다. 그 사이에 카메라와 스마트싱스 등 여러 아이콘들도 사이사이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에 비스포크 개념을 추가해 공개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초대장에 비스포크에서 인기가 많은 색상을 중심으로 표현한데다가, 이를 조합해 완제품을 상징하는 정육면체를 만들었기 때문.

파트2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갤럭시 S21 FE 등 신제품 보다는 지난 언팩에서 공개했던 갤럭시 Z 시리즈 라인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갤럭시 언팩 파트2

/삼성전자

이 높다는 분석이다. 컬러 마케팅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 Z 플립3를 비스포크 생태계에 편입하는 내용이 점쳐진다.

갤럭시 Z 플립3 컬러를 확대하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갤럭시 Z 플립3를 다양하게 꾸미는 모습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컬러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때문에 틱터 등은 삼성전자가 하반기 갤럭시 Z 플립3를 추가할 것이라는 추측을 지속해왔다.

비스포크는 제품 소재와 색상 등을

소비자 뜻대로 고르는 주문생산 방식 제품군이다. 냉장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가전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되면 단순히 컬러를 추가하는 데에서 나아가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최근 부문별로 협업 시스템을 확대하는 상황, 갤럭시 스마트폰이 비스포크를 입으면서 스마트싱스를 통한 IoT 시스템 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통합하면서 자사 생태계 통합 작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포스코, 3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영업익 3.1조, 매출액 10년래 최대

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철강 시황 호조세가 이어진 데다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사업 등 계열사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준 덕분이다.

포스코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0조6100억원에 영업이익 3조110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실적을 13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4.53%, 364.18%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창

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분기(2조2000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주력인 철강사업 자체의 실적도 좋았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9% 증가한 11조31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84.6% 늘어난 2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2011년 4분기 10조660억원 이후 10년 만에, 영업이익은 2008년 3분기 1조9830억원 이후 13년 만에 각각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재웅 기자

LG전자, 마이크로 LED ‘대통령상’

‘2021 국제 광융합 엑스포’서 디스플레이 혁신 기술 최고상

LG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도 높은 기술력을 확인했다.

LG전자는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국제 광융합 엑스포’에서 마이크로 LED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광융합엑스포는 산업통상자원부, LED산업포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LED & OLED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 Display & Signage 제품 및 기술 ▲ 광융합 신기술 등을 포함해 총 6개 분야의 전시가 진행되며, 올해는 총 200여 개 회사가 참가했다.

마이크로LED 부문 대통령상은 디스플레이 분야 혁신 기술 최고상에 해당된다. LG전자 ID사업부, CTO부문 소재기술센터, 생산기술원과 LG디스플레이가 협업해 공동 개발했다.

마이크로 LED는 초소형 LED 소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며 화소 역할을 하는 자발광 방식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밝고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이 장점으로 꼽힌다.

LG전자는 디스플레이의 개별 화소를 각각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TFT(박막트랜지스터) 방식을 적용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해상도를 구현하기 용이하고 반사가 적은 등 기존 PCB(인쇄회로기판) 방식 대비 한 차원 높은 기술로 평가받는다.

LG전자는 올레드 TV에 이어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차세대 기술인 마이크로LED 기술을 인정받은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LG전자는 ‘LG 매그니트’를 출시하며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삼성 vs LG ‘친환경 에너지절감 기술’ 격돌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참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너지 절감 기술을 겨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종합 전시회다. 올해로 40회째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한 제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소개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까지 고려한 스마트홈·스마트빌딩 솔루션을 공개했다. ▲ ‘에너지 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은 ‘무풍 시스템에어컨 4Way’ ▲ ‘에너지 효율상’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와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 ‘에너지 기술상’ ‘비스포크 패밀리허브 냉장고’ ▲ ‘에너지 위너상’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와 ‘시스템에어컨 DVM S2’ 등이다.

특히 메인 공간인 하이라이트 존에는 상업용에서 주거용 에어컨을 아우르는 에너지 기술 리더십을 강조한다. 모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했고, 실외기 DVM S2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했다.

‘비스포크 홈존’에서는 ▲ 고효율 히트펌프를 적용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한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를 비롯해 ▲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삼성전자 전시관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LG전자 전시관 /각사

삼성전자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제품 중심 스마트홈·스마트빌딩 솔루션 공개

LG전자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전시관 마련 다양한 공간 최적화 솔루션 선보여

기 AI ▲ 비스포크 패밀리허브 냉장고 ▲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인 제품들을 선보인다. 에너지를 관리해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코너도 별도로 마련했다. 무풍 기술과 시스템 청정 공기 등 ‘옴 효율 제품’과 ‘스마트빌딩’ 솔루션도 있다.

LG전자는 친환경 전시관을 마련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조립식 컨테이너, 폐목재 등 재활용 자재를 사용한 270㎡ 규모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용한 컨테이너는 한국해비타트 등에 기증해 교육장, 쉼터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전시관에는 인공지능 모듈 ‘LG AI 엔진’을 갖춘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주거, 업무, 교육, 상업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에너지 토탈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AI엔진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우수한 신기술에 부여하는 NET 인증을 받았다. 온습도, 인원수, 활동량과 같은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현장 학습을 통해 실내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에너지를 절감해준다.

주거용 솔루션으로는 ▲ 직접 바람이 닿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해주는 휘센 타워 에어컨 ▲ 공기청정 시스템을 탑재해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주거용 공기 시스템 ▲ 실내 공기질 정보와 전력사용량을 보여주고 LG 스마트 가전도 제어할 수 있는 LG 센서허브 등을 선보였다.

업무용 솔루션에서는 ▲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5단계 청정관리 기능을 적용한 시스템 에어컨 ▲ 에너지 저장장치(ESS) ▲ 건물 에너지 관리 솔루션 비컨 등을 전시했다.

/김재웅 기자

볼보 신형 S90·V90 CC ‘음성인식’ 탑재

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 ‘티맵’ 탑재로 내비 편의성 높여

볼보 S90과 V90 크로스컨트리도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S90과 V90 크로스컨트리에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볼보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300억 원을 투자해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최근 신형 XC60에 이어 S90과 V90 크로스컨트리에 도입 기술을 확대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티맵을 탑재해 내비게이션 편의도 크게 높였다. 볼보 카스 앱과 볼보온콜 등도 포함된다.

ADAS도 업데이트 했다. 후방 물체를 감지해 제동하는 리어 액티브 브레이크가 주인공. 레이더 센서와 ASDM도 새로운 위치에 배치했다.

아울러 플래그십 라인업을 위한 어드밴스드 공기청정기와 이오나이저, 뒷좌석 통풍 시트 등 고급 편의사양도 추가했다.

가격은 ▲ S90 B5 모멘텀 6150만원, 인스크립션 6850만원, B6인스크립션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볼보자동차코리아

7250만원, T8 인스크립션 8540만원, ▲ V90 크로스컨트리 B5 AWD 6950만원, PRO 7570만원, B6 PRO 7970만원이다. 5년 또는 10만km의 무상 보증과 소모품 교환 서비스도 제공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스웨디시 럭셔리의 가치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